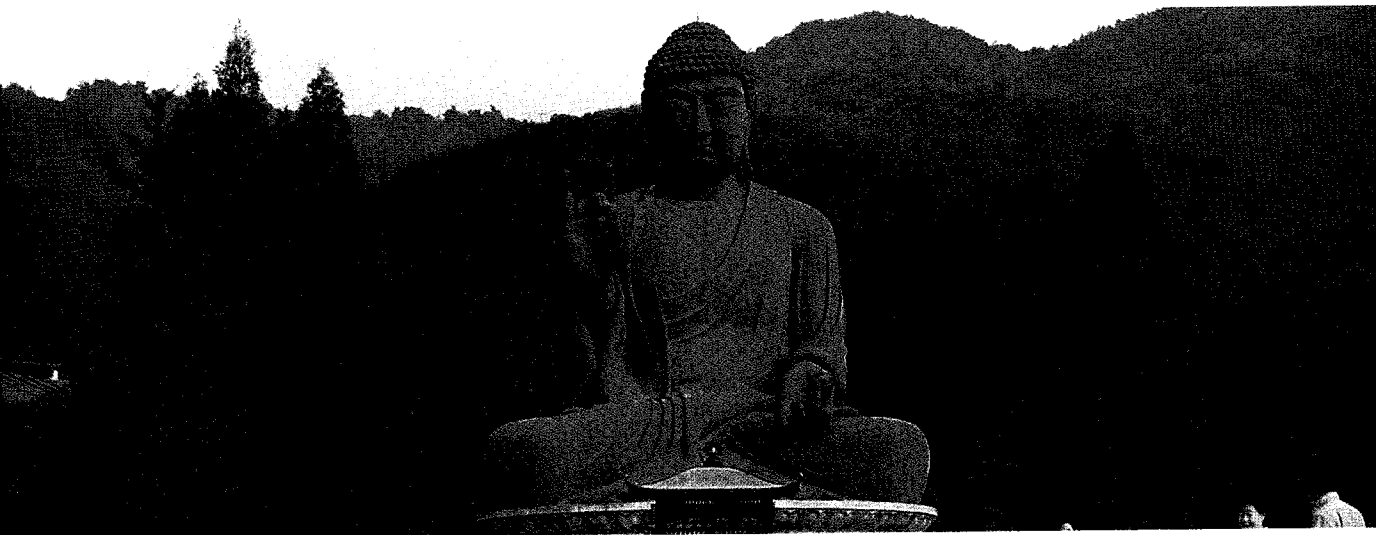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

전통과 첨단의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안

글. 김형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청동여미타불좌상

천안의 진산 "태조산"

우리는 흔히 '천안' 하면 열차안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연실 외치는 선물용 호두과자를 떠올리게 된다. 하늘 높은 물 맑은 10월, 드넓은 경기도 평택 평야지대를 지나 충청도의 관문인 충북 천안에 들어선다. 맑은 하늘만큼이나 주변에는 그다지 높지 않은 산들도 이름에서 이야기하듯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곳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향하면 넓은 저수지와 주변경관에 흠뻑 빠져들 것 같은 아름다운 대학의 캠퍼스들이 보인다.

사통팔달의 고장이라서 그런지 그 여느 지역보다 대학이 많기로 소문이 날 정도다.

산자락 밑에 천안시민과 주변 관광객이 들러간다는 충청북도 천안의 대표적인 진산인 태조산이 보인다.

천안시의 유량동과 목천면 덕전리 사이에 위치하는 태조산은 해발 421.5m의 산이다. 유량천, 산방천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고 정상에 오르면 천안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다.

고려 태주가 이 산의 서쪽에 주둔하여 태조산이라고 불려진다는 이 산은 경사가 완만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이기도 하다.

때마침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을에 단풍절경은 강원도 여느 산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천안에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 명소 "각원사" - 동양 최대의 청동여미타불좌상

국난국복에 앞장섰던 선현들의 위대한 정신과 우리 민족의 강인한 기상이 넘쳐흐르는 천안



각원사로 향하는 이정표



각원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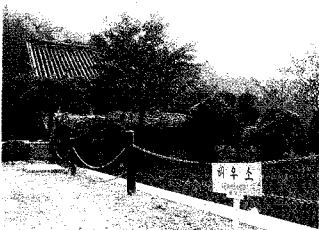


각원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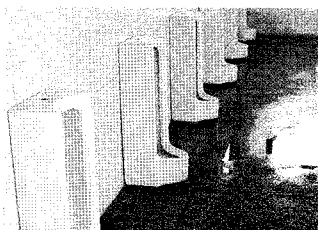
태조산에 위치한 각원사는 불국사 아래의 대사찰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동양 최대의 청동아미타불좌상이 있으며, 이곳을 오르려면 먼저 203개의 무량공덕계단을 올라야 한다. 이 203개의 계단은 불교의 108번뇌의 소멸기원 계단, 아미타불의 48가지 소망기원계단, 관세음보살이 32가지 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32승신계단,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맺어지는 12인연계단,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3도계단 등의 합친 수를 뜻한다.

불상은 서향으로 2.5m 높이의 원형대좌 위에 봉안되어 있으며, 그 둘레는 30m이다. 하대석에는 복련이 양각되고, 중대석에는 연꽃잎의 안상이 있으며, 상대석에는 양련이 있다. 원만한 얼굴에 불상의 머리는 나발을 하고, 육계는 둥글고 크다. 좁은 이마에 백호를 달고, 귀는 목까지 내려왔으며, 목에는 3도가 표현되었고, 수인은 중품중생인을 취하였다.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으며, 불상의 높이는 12m이다.

이 불상은 1975년 3월부터 2년 2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1977년 5월 9일 이곳에 봉안되었으며, 불상 속에는 진신사리와 팔만대장경 탁본판이 들어있다.



사찰내 공중화장실(해우소)



실내 남자 소변기



실내 천정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각원사, 해우소

작은 표지판을 따라 울창한 주변 나무숲 사이로 해우소(공중화장실)가 보인다. 건축물은 공중화장실이라기 보다 용도를 바꾸어 사용했을법한 불교양식의 건축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일반 여타 현대식 공중화장실과 달리 골목을 따라 양쪽 입구를 만들어 옛 정취 그대로, 시골 화장실을 연상케 하듯 다소 냄새는 나고 있었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만큼은 아니었으며, 또한 남자소변기에는 수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여자화장실 또한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중요사찰의 이미지에 오점이 되어 보였다.

또한 남녀 화장실의 칸막이 자체가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처음 사용자에게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들어 보였으며, 자연 그대로의 환기시설로 이해하기보다 에티켓을 고려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천여명이 찾는다는 이곳, 하나밖에 없는 공중화장실 치고는 양호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찰의 넓은 규모에 비해 화장실의 수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